

대학의 열린교육체제 운영의 내실화

정 영 수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 교무처장

1. 서 론

열린교육체제의 기반 구축과 열린교육체제 운영의 내실화는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개혁의 두 가지 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각 대학들은 열린교육체제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간제 학생 등록제, 학점은행제, 가상대학 운영, 모집단위 광역화 및 다전공 제도 등 다양한 새로운 교육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열린 제도들이 도입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점은 열린교육체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한 대응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열린교육체제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열린교육체제의 의미와 논리를 검토한 연후에, 열린교육체제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문제들과 원인을 진단하며, 열린체제 운영의 내실화 기본방향과 주요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열린교육체제의 논리

1) 기본가정과 논리

열린교육체제는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열린 시대에 적합한 체제로서의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열린교육체제란 종래의 닫혀진 체제로부터 열린체제로의 전환을 함축하며, 종래의 교육공급자 위주, 즉 학과중심, 교수중심의 교육체제로부터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체제를 지향, 불필요한 담을 허물고 상호교류를 확대한다는 개념을 함축한다. 둘째 의미는 방법론으로서의 열린교육체제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을 극대화하며, 비교 우위의 분야를 특성화해 나간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셋째는 대학의 재구조화의 방향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교육체제를 재구조화함으로써 신텔리티의 극대화, 즉 모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가는 데 목표를 두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열린'이란 표현은 오늘의 대학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추구하고 있는 대학개혁 그 자체를 표현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러한 열린교육체제는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 ① 열린교육체제는 선택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이다.

- ② 선택은 책임과 주체의식을 수반하며, 참여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 ③ 다양한 제도, 다양성의 보장 수단의 하나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 ④ 열린체제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열린 체제는 통제체제보다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높일 것이다.
- ⑤ 대학교육체제는 국가경쟁체제의 일부이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건은 열린체제이다.
- ⑥ 열린교육체제는 예기치 않은 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체제라는 것이다.

또한 열린교육체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논리를 함축하고 있다.

- ① 신뢰의 논리 : 인간성 존중, 자율적 선택 의지를 강조하는 논리
- ② 책임, 책무성의 논리 : 상호 책임,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논리
- ③ 권력 공유의 논리 : 힘의 분배를 통한 권력 강화의 논리
- ④ 참여 확대의 논리 : 과정 절차를 존중하는 논리
- ⑤ 선택 기회 개방과 보장의 논리 : 실질적 기회 보장을 강조하는 논리

아울러 열린교육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 위한 조건을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수요자들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고 공정한 운영이 되도록 하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교육프로그램 선택권을 보장하며,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수요자로서 하여금 자신들에게 적합한 최적의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교육의 수월성에 궁극적 목표를 두고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 ④ 수업 연수, 졸업 소요기간의 신축성, 평생교육체제로서의 대학교육을 지향한다.
- ⑤ 대학의 구조, 관료제적 특성은 그 자체가 효과적인 성취를 저해하는 특성을 조장하므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한다.
- ⑥ 열린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서 시장접근의 논리, 선택 기회 보장은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지닌 하나의 개혁 조치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2) 열린교육체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

열린교육체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열린교육체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하는 이유는 열린교육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점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첫째, 고등교육개혁 방향의 하나인 열린체제 기반 구축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문제들 중 대학사회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는 열린교육체제가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실상 질적 수월성을 외면하는 열린교육체제는 공허한 낱말에 불과하고, 닫힌 생각과 닫힌 교육체제를 탈피하지 못한 채, 질적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허망한 꿈일 가능성이 크다.

둘째, 열린교육체제의 기반 확립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제도들이 우리의 사회 문화적 토양에 부적합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즉, 아무리 선진 대학의 이상적인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 대학의 사회 문화적 토양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검증되지 못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한 채, 서둘러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열린교육체제에서 전제로 하는 기본 가정은 학습자가 지식, 정보를 스스로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학습자의 학습의 토대가 되는

기초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을 낳을 수 있고, 학습자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학습결손 내지 부진 현상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나아가서 교육의 질, 수월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경향을 초래한다. 또한 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선택 기회를 다양하게 부여하고 보장한다는 의미가 곧 공통적으로 학습해야 할 교육내용, 즉 일정한 지식내용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일정한 목표에 따라 일정한 수준에 도달시켜야 할 책임은 교육공급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 대학을 서비스 기관으로, 학생을 소비자·수용자라는 성격만으로 필요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환자가 병원의 생산품이 아니고, 죄수가 교도소의 생산품이 아니듯, 학교는 공장이 아니며, 학생은 생산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를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지 않듯, 대학 또한 결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나 경제기관이 아니다. 대학은 학생을 돌보고 학생의 학습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학생이 대학의 생산품은 아니다. 이렇듯, 물품생산의 표상에서 본 교육관은 교육을 이해하는 일부의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학생은 곧 소비자'라는 개념은 학습의 주체와 학습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교육공급자에게 전가하는 오류를 낳게 한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열린체제에서의 경쟁은 교육의 개선과 개혁을 추진하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쟁의 개념이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로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대학기관 조직 수준에서 적용되는 원리로서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개개인에게는 개인의 이익 동기에서 동기화될 수 있지만, 대학 내지 교육기관은 그 자체 조직의 특성상 본질적으로 이익의 동기에서 설립되거나 영리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아니다. 대학의 경우, 그 목적은 진리 탐구와 사회적 지도자 양성이라는 데 놓여져 있다.

여섯째, '선택과 경쟁' 개념의 도입은 오늘의 대학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력을 신장하기 위한 중

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선택과 경쟁이 대학교육의 수단화를 촉진하는 것어서는 안 된다. 대학이념과 목적을 상실하고, 본래적 위치로부터 이탈하는 대학교육의 수단화를 촉진하게 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토대가 마련되기 전에 집을 지으려는 성급함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학의 혼돈과 가치관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으면서도 선택과 경쟁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곱째, 열린체제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묻는 평가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즉 '누가, 무엇에 관하여, 누구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를 분명히 하고, 복잡한 대학교육체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타당한 도구와 절차가 취약하다. 평가체제를 대학의 현실을 조정하려는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 도입의 초기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정해 놓은 틀에 짜맞추기 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열린교육체제는 학생의 자율적인 자기통제 능력을 전제하고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이다. 즉, 학습자의 학습의 속도와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학생의 전공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학생에게 전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학생이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맞추어 가려는 경향 때문에, 준비된 교육목표와 지식의 형식을 갖춘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교육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3. 내실화의 기본 조건

1) 대학교육의 부실 요인

대학의 열린교육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대학교육의 부실요인은 대체로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즉 첫째, 인식의 틀이 비뚤에 따라 교육의 본질이 과소평가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왜곡되며 그 중요성 인식이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양과 질의 간극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속도가 앞서고 내실이 뒤따르지 못하는 변화 지체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가시적 단기적 성과 위주의 평가로 대학의 무게 중심을 지탱해 왔던 틀로서의 대학의 이념과 가치 위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넷째, '당근과 채찍'의 방법에 의한 대학의 개혁과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기초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논리가 시장경쟁의 논리에 지배를 받고, 힘을 쓰지 못하는 과소권력화의 위상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일차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되고, 행정 효율의 논리가 지배적인 힘으로 작용, 대학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다섯째, 경쟁적으로 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대학간 노력은 획일적인 열린체제를 조장하고, 대학의 여건에 따른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도리어 약화시키는 현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이다.

2) 내실화의 기본 조건

열린교육체제의 내실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열린교육체제 운영의 목표 달성, 대학체제 개혁의 목표달성 수단으로서 열린교육체제의 효율성, 시대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체제의 요구 충족성, 삶의 질 제고 수단으로서의 가치 적합성 등이 그것이다.

첫째, 대학의 이념과 본질적 가치에의 적합성이다. 열린교육체제의 목적은 대학의 이념과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오늘의 사회가 변화되었다고 해서 전통적 관점에서의 대학의 본질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대학의 기능의 변

화가 곧 대학의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옷을 갈아입는 행위는 사람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경쟁력있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오늘의 교육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마치 대학교육의 본질이 변화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열린교육체제 운영의 효율성이다. 오늘의 대학개혁 현실의 특징은 개선이나 혁신이 아닌 개혁,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요구 확대, 관료 엘리트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 주도,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식의 전환 요구, 당근과 채찍을 전제로 한 자율적 변화 유도, 대응조치나 후속조치 등 준비가 갖추어지기 전에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상황의 전개와 경쟁적 변화, 변화의 속도·방법 및 방향의 확실성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현실에서 열린교육체제의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개혁과 변화 그 자체를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사회체제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충족성이다. 열린교육체제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대응할 수 있고, 소비자·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열린체제는,

- ① 상황에 적합한 틀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대학 위기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틀을 바꾸어 나가되, 선후가 뒤바뀌고 본질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 ② 변화에 대한 요구와 변화 수용과정에 초점을 두고 문제 해결 접근을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 ③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요구들,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열린교육체제가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삶의 질 제고 수단으로서의 가치 적합성이다. 열린교육체제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대학사회의 학구적 분위기 조성파 대학 문화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 전체 사회의 인간 가치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한층 더 존중하고, 명실상부한 교육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야 한다. 아울러 열린교육체제는 '공정한 경쟁의 법칙'에 기초하여 질적 발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4. 내실화를 위한 주요 과제

내실화를 위해서는 첫째로 열린교육체제 그 자체의 제도적 확립이 요구되며, 둘째로 열린체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상의 부실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의 질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능력 개발과정으로서의 대학 교육과정 개편

열린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능력과 태도를 개발하는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체제에서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전공을 선택하고, 기존의 학문적 권위를 초월하여 종래의 교육방법과 내용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학과간, 전공간, 대학간, 대학과 사회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간의 벽을 허물고, 연계구조 속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공부할 수 있는 열린교육과정을 제공해주어야 할 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 교수의 연구와 철저한 준비를 갖춘 수업의 질 향상, 교수학습방법의 방법론 개발, 그리고 학문적 앎과 삶의 본질에 관한 지도교수와의 대화, 수업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여건 마련 등 대학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어야 한다.

2) 미래교육체제로서의 열린 원격교육체제의 정착

미래사회의 중추적 교육체제로서의 원격교육의 체제를 구상하고 미래의 새로운 교육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양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¹⁾ 교육프로그램에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 특정한 교육기관에 입학할 허가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학습자'의 개념 규정은 달리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인이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위계를 안내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 학습활동을 안내하는 표준 강의요목,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특정 조건하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인정은 원칙적으로 학습자가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위나 자격을 추구하고 되는 교육프로그램 개체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1) 김재웅 외, "교육개혁과 열린 원격교육체제", 『사회교육학연구(1998)』, Vol.4, No.1, 243~276쪽.

3) 대학교육 서비스 체제로서의 학점은행제 확립

학점은행제는 대학의 교육서비스 기능이 활성화됨으로써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또한 대학 내 사회교육원을 비롯하여 각종 대내외 사회교육기관의 교육의 질 관리 확보와 여건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학위 위주의 형식적 운영 등 파행적 운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학점인정은 학점은행제와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²⁾, 직업교육을 학점은행제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서비스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점인정제는 학위 증시의 사회에서 보다는 자격 위주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다양한 자격증제도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사회교육 실시 조건과 여건 마련을 위한 적극 지원이 요구되며, 전문직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교육담당자를 양성하고 연수할 수 있는 질적 관리를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교육원의 교육과정은 학점인정과정과 비학점인정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점당 등록금제도를 도입 확대하며, 국·사립간 학점등록액수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본부와 사회교육기관이 연계하여 자격취득과 학위취득과정을 전문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간제 학생등록제 도입 운영의 여건 조성

시간제 학생등록제 도입의 효과는 제도 내적 요인보다는 외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시간제 학생등록제 도입 운영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선발대상의 정원과 학점인정수 범위 여건을 갖춘 대학에 한해, 해당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강좌별 수강생수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여건에 적합한 정원책정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의 시간제 학생 등록과 선발을 할 경우, 등록자가 대학수준의 학습능력에 대한 최저 요구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학점은행제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평생에 걸친 교육적 경험을 교육구좌로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학점 인정 평가기준을 개발, 학점인정체제를 확립하고, 대학별로는 자체적으로 학점은행 관련기구를 설치, 학점은행 서비스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로, 대학은 시간제 등록 신청학생의 수강을 개방, 학점수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학점당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학기당 등록금제의 합리적 전환이 요구된다. 넷째로, 학점상호인정제가 확산되어야 한다. 대학간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들을 교류함으로써 취약점을 보완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타대학 학점인정 교과목을 사전에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단, 시간제 등록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간제 학생등록제 적용 가능 대학, 등록 학생의 자격, 규모, 교육과정의 구조와 운영 등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³⁾ 다섯째, 등록 강좌의 편중된 집중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업용 학원식 흥미 위주의 강좌 개설이 아닌, 필요한 강좌가 개설되고, 많은 수의 등록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학점교류 컨소시엄 구성 운영

현재 각 대학은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학점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상호인정을 위하여 학술교류 및 자매결연 협정을 적극 추진하는 추

2) 김인희 외 5인(1997), 『교육개혁의 종합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65쪽.

3) 정진환(1996), 『시간제학생 등록제 도입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연구원, 137~140쪽.

세에 있다.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 대학에서의 취득 학점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도 계절제 학기에 등록을 하면 일정 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간 학점교류 상호 인정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타대학 취득 학점의 유사·동일 또는 전공·자유선택 등 교과목 학점 인정 방법과 기준, 그리고 학점 인정 범위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역권 또는 협정체결 대학간 교육과정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하나의 학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국내외 교류를 통해 타대학 교수의 강좌를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는 방안도 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 편입학 기회 확대에 의한 대학 학과간 이동의

합리적 통제

전공간, 학과간, 단과대학간, 타대학간 벽을 트고, 다른 대학의 다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의 학부에 편입학하여 원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편입학의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편입학한 이후의 질적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수 학생이 타대학의 타학과로 빠져나감으로써 소위 비인기학과와 우수 학생이 출신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수가 감소함으로써 빚어질 수 있는 학문 발달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하여, 비인기학과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할 학과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7) 모집단위 광역화에 따른 엄정한 학사운영 및 질 관리 체제 확립

모집단위의 광역화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간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지도교수 제도의 활성화, 학생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 및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적합한 선택이 가능한 다전공 제도의 운영, 모집단위 광역화에 따른 공통교육과정의 합리적 구성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 아울러, 다전공제 도입 운영에 따른 전일제 수업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밀도있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제간 과목, 전공과목 구성을 적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하여 전공과정의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이제 대학은 공정한 경쟁의 법칙에 기초하여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으며, 대학 교육체제는 이미 열린체제로의 재구조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열린교육체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내실화하고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열린교육체제를 도입하기만 하면 우리가 교육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는 명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열린체제가 활발히 운영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대학교육만이 오늘의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대학교육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여전히 새로운 대학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에 적합한 합목적적인 '지식의 형식'을 갖춘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할 책임은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에게 있다. 아울러 대학 전 구성원의 대학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참

여가 없는 '선택 기회 보장', '열린' 체제란 말은 명목
 뿐인 단어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교육관료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의미없는 공허한 낱말
 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 ㉔

〈참고문헌〉

권기욱 외 3인, 「대학학기제 및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방안」, 한국대
 학교육협의회, 1994.
 권인택, 「학점은행제와 대학사회교육 운영방안」, 『교육행정학연구』, 제
 15권 제2호(통권 제29호), 한국교육행정학회, 1997, 168~191.
 김인희, 이종각, 이일용, 홍생표, 허태진, 이병기, 『교육개혁의 종합평가
 와 새 정부의 과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7.
 김재웅, 임천순, 강태중, 「교육개혁과 열린원격교육체제」, 『사회교육학
 연구』, Vol.4, No.1, 1998.
 나민주, 「고등교육정책의 주요 논리 : 역사적 고찰」, 『고등교육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고등교육연구회, 1995.
 서정화, 노종희, 정영수, 김은산, 「고등교육개혁방안 평가연구」, 『교육
 행정학연구』, 제16권 제2호(통권 제32호), 한국교육행정학회,
 1998.
 정영수, 「대학행정조직의 개편방향」, 『고등교육연구』, 제7권 제2호, 한
 국고등교육연구회, 1995.

정진환, 「시간제학생 등록제 도입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연구원,
 1996.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의 신세기적 구상: 2000년대 한국교육의
 방향과 과제』, 1997.

Lindquist, Jack, "Strategies for Change", Jerry G. Gaff, et.al.,
*Handbook of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 A
 Comprehensive Guide to Purposes, Structures, Practices, and
 Change*, Jossey-Bass Publishers, 1996, 633~644.

정영수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행정학을 전
 공,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원, 한국
 교육개발원 연구원, 동아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자
 료부장(파견), 충북대 종합발전계획연구위원회 위원장, 학생생활연구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 교무처장으로 재직중이
 다. 공저로 『한국교육행정의 발전과 전망』,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학연구법』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교육정책평가의 논리
 와 실제적 방법론」,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정책」의 다수글 발표했다.